

초능력자들 '안방극장' 접수 예고

무한재생·괴력·오감·염력 등 초능력자 다룬 드라마 방영 잇따라 '경이로운 소문2'·'무빙'·'힙하게' 히어로·로코물 등 장르도 다양

무한재생, 월등한 오감, 비행, 전기발생, 괴력, 염력, 사이코메트리까지. 각종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울려뜰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지난달 29일 처음 방송된 tvN '경이로운 소문2: 카운터 펀치'는 '한국형 히어로물'을 표방한다. 새로운 능력과 신인 멤버 영입으로 더 강해진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땡'을 부르는 능력과 엄청난 염력을 갖춘 소문(조병규 분), 괴력의 소유자인 형사 가모탁(유준상), 상대의 기억을 읽는 능력자 도하나(김세정), 치유 능력자 매옥(염혜란)은 하나의 팀을 이뤄 악귀들을 추적하고, 등을 맞댄 채 목숨 건 싸움을 이어간다.

오는 9일 공개되는 디즈니+ '무빙'에도 초능력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강풀 작가의 웹툰 '무빙'을 원작으로 한다.

드라마 각본까지 쓴 강풀(본명 강도영) 작가는 최근 '크리에이터스 토크' 행사를 통해 "한국형 히어로를 표방한 만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접목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역사를 녹여내면 한국형 히어로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무빙' 속의 모든 인물은 세상을 구한다는 대의보다 가족과 친구, 연인, 동료 같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말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금방 회복하는 재생 능력을 지닌 초능력자 장주원(류승룡), 초인적인 오감의 소



'소용없어 거짓말'

유자 이미현(한효주), 비행 능력자 김두식(조인성),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자 전계도(차태현), 빠른 속도와 강한 힘을 가진 이재만(김성균) 등 각 캐릭터가 가진 초능력 자체는 진속하다.

초능력을 사랑의 소재로 활용한 로맨틱 코미디극들도 있다.

tvN에서 방송 중인 '소용없어 거짓말'의 여자 주인공 목소희(김소현)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목소희는 본인의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웃으며 뒤통수를 맞아야 하는 목소희는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외로움지연정 고풍을 택한다.

옆집에 마스크로 얼굴을 핑퐁 가린 수상한 남자(황



'힙하게'

민현)가 이사 오면서 목소희의 일상은 뒤바뀌기 시작한다.

오는 12일 처음 방송되는 JTBC 코믹 수사 활극 '힙하게'도 초능력을 가진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다.

배우 한지민이 어찌다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을 얻게 된 수의사 봉예분을 연기한다.

특이하게도 엉덩이를 만져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정이다.

정도 많고 오지랖도 넓은 그는 자신의 능력치를 실험하던 중 새로 온 열혈 형사 문장열(이민기)과 엮여 범치 않는 청정 농촌 마을 무진에서 그와 함께 자잘한 사건들을 해결하게 된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김석운 감독, 이남규 작가가 4년 만에 다시 뭉쳤다. /연합뉴스

쏟아지는 '여행 예능'

'형따라 마야로' 등 5편 신규 편성...식상함은 숙제



'택배는 몽골몽골' 제작발표회.

고대 신비의 도시 마야의 문명을 쫓는 '형따라 마야로: 아홉 개의 열쇠'(tvN), 두 배우의 우정 여행을 담은 '배우는 여행중'(JTBC), 몽골에서의 택배 배송 일지 '택배는 몽골몽골'(JTBC).

외국 여행을 소재로 출연자와 테마를 달리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6일 방송가에 따르면 8~9월 처음 방송되는 여행 예능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총 다섯 편에 이른다.

낮선 환경과 상황이 신선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 시청자의 피로감도 쌓여가고 있다. 이에 식상함을 덜기 위한 제작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첫 방송한 tvN의 '형따라 마야로: 아홉 개의 열쇠'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마야 문명을 탐사하는 과정을 다룬 예능이다.

자칫 시사교양 프로그램처럼 딱딱해질 수 있지만, 배우 차승원을 비롯한 출연진이 식사를 직접 책임지는 모습에서도 재미를 찾는다. 차승원은 과거 '삼시세끼' '시리츠나' '스페인 하숙' 등에서 이미 여러차례 음식 솜씨를 뽐낸 바 있다.

첫 방송은 차승원과 배우 김성균, 그룹 더보이즈 주연 등 출연자들이 비행기를 세 번 타고 멕시코의 시골 마을에 도착하는 과정을 다뤘다. 시청률은 3.8%를 기록해 동시간대 tvN이 방송하던 '뽕뽕 지구오락실' 시즌2의 첫 방송(3.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는 23일 첫 방송을 앞둔 JTBC '배우는 여행중'은 1988년생 동갑내기 배우 임시완과 정해인의 스코틀랜드 여행을 다룬다.

동갑내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임시완과 정해인이 모두 위스키 애호가라는 점에 착안해 유명 위스키들의 고향으로 꾀하는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는 모습에서 색다른 재미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달 18일 첫 방송을 앞둔 '택배는 몽골몽골' 역시 친분이 있는 출연자들을 기용해 이들의 '케미'(호흡)에서 나오는 재미를 추구한다.

'택배는 몽골몽골'은 1976년생 '유평 절친'인 가수 김중국과 홍경민, 배우 장혁과 차태현, 홍경민이 열다섯 살 어린 배우 강훈과 함께 몽골에서 택배 배송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 밖에도 SBS플러스의 '먹고 보는 형제들'과 플랫폼이 정해지지 않은 '찐찐 바이브' 역시 9월 중 첫 방송이 예정돼 있다.

각각 '먹고 보는 형제들'은 코미디인 김준현과 문세윤이 먹는 즐거움을 주제로 외국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고, '찐찐 바이브'는 가수 겸 배우 윤은혜와 오마이걸 효정, 배우 김시영의 일상 탈출 여행을 다룬다.

이처럼 소재와 출연진에 변형을 준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것은 낮선 환경에서 오는 돌발 상황과 의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주제를 달리해도 결국 수많은 공통점이 있는 여행 예능이 여럿 쏟아져 나오면서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 우려도 있다.

한 시청자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결국 놀러 가서 농담하고 음식 해먹고 또 같은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선균·정유미 '잠' 토론토국제영화제 초청

다음달 6일 국내 개봉

이선균·정유미 주연의 스릴러 영화 '잠'이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제48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밝혔다.

초청 부문은 '미드나이트 매드니스'(Midnight Madness)로, 강력한 분위기의 장르 영화를 소개하는 부문이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잠'에 대해 "서스펜스와 재치, 강력한 모호함을 통해 능숙하게 장르를 전복했다"고 평가했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 등에서 연출부로 활동한 유재선 감독의 첫 장편이다. 수면 중 이상행동을 보이는 남편 현수(이선균 분)와 그를 예전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아내 수진(정유미)의 분투를 그린다.

시나리오 단계부터 '잠'을 지켜본 봉 감독은 완성된 작품을 본 뒤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독창적인 공포 영화이자 영리한 데뷔 영화"라는 평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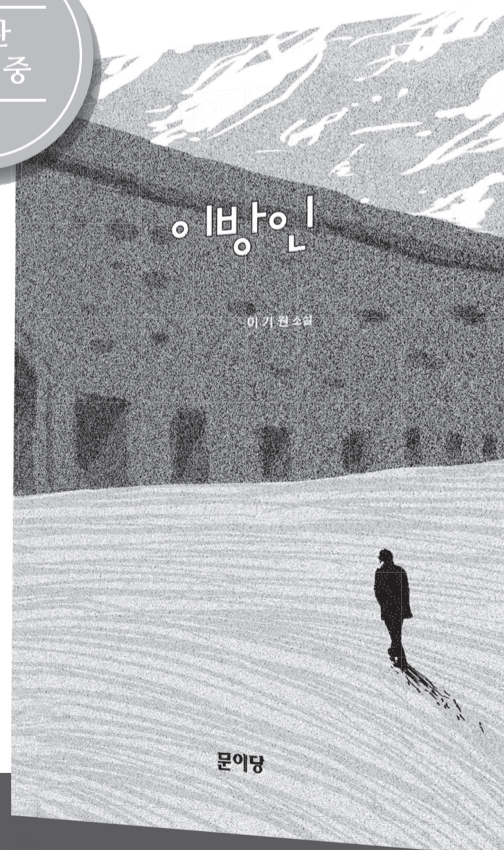
이 영화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56회 시체스국제판타스틱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대됐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6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매일 밤 낯선 사람이 깨어난다

절찬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